

한국도자기, 英 런던 경매에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6-11-02 15:38 | 최종수정 2006-11-02 15:38

(: : '본차이나 고장' 첫 진출, 도예가 12명 36점 출품 : :)

우리 현대 도자기가 '본차이나'의 도시, 영국 런던의 현대도예 경매에 처음 진출한다.

오는 7일 오후 6시 영국 런던 본함스(구 필립스)경매의 '20세기 한국 일본 도예경매' 행사에 한국 도예가 12명의 작품 36점이 출품된다. 본함스는 세계 각국의 현대도예품을 취급하는 20, 21세기 현대도예시장의 리더이며, 경매 출품작들은 경매장에서 3~7일 사전 전시된다.

런던경매의 출품작은 방철주 유광열 박병호씨의 청자, 박영숙 정영택 이영호씨의 백자, 이정도 김상만 허상욱씨의 분청 및 정재효 노경조 이인진씨의 작품 36점. 이들은 문화관광부 세계도자기 엑스포 삼성전자 후원으로 지난 5월 런던에서 열린 한·영 수교 120주년 기념 '전통과 현대 도예'전(사진)에 전시된 데 이어, 경매행사장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런던 전시 및 경매의 출품을 담당한 큐레이터 김승민씨는 "본함스 경매에 한국의 현대도예품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마침 11월 런던아시아아트축제기간 중이라 경매를 통해 한국 현대 도자를 적극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힌다.

김씨는 또 "일본 현대도예가 본함스 경매를 통해 세계적 인지도를 넓혀왔듯, 지난 봄 전시이후 전시 문의와 더불어 컬렉터층이 늘고 있는 한국 현대도예가 런던 경매를 계기로 해외시장서도 호평을 얻게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